

佛敎와 人權  
- 원효사상을 중심으로 -

이 규 호 (유원대학교)  
doclkh@yd.ac.kr

< Abstract >

Buddhism and Human Rights  
- Focusing on Wonhyo Thought -

Lee, Kyu Ho (U1 University)

The legal and moral right, Western-centered man, is a human right that goes beyond racial selfishness, against the ethnocentric human rights of man and nature of means. Buddhism also pursues the well-being of all beings, not only humans, but also human rights that respect life and respect all beings from a win-win and community perspective.

In discussing the concept of human rights in Buddhism, which means human rights should be guaranteed to the well-being of all beings, which means care for others, and of self-preservation should be considered. The Buddhist is a moral and disloyal (respect for human beings) as the enlightenment inherent in all human beings. The basis of the Buddhist human rights advocacy lies in the Saseongje, which means to break away from the anti-human rights reality and implement it as a happy reality of human respect. The Buddhist practice of human rights includes, which follows the logic of acting in the realization of human rights, and which appears as a culture of nonviolence, murder and mercy, and evil.

Wonhyo's idea of a peacemaker, which means harmonizing all the disparate things, such as reconciliation of different arguments, reconciliation between people, and reconciliation of all beings, implies that both the self-reliance and the subject of a peacemaker who is not obsessed with anything are the existence of one minds, and that it means the practice of mercy. This conflagration implies the equivalent of the three ideologies of human rights, freedom, equality and humanity (unlike the Western concept of human rights, which presupposes the glorification or expansion of desire), freedom and equality and humanity embodied in the dispute are absolute trust in humans, the emptiness of one's desires, and the positivity of the whole being, and human rights are reconciled (all beings).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present Wonhyo ideology as a solution to the human rights problem after considering Buddhism and human rights theory in order to solve the human rights problem in modern society from a Buddhist perspective, focusing on the literature at home and abroad.

Key words : Buddhism and human rights, Wonhyo and human rights, Wonhyo ideology and human rights, hwajwaeng and human rights, Iljisang and human rights

|| 목 차 ||

- I. 서 언
- II. 불교인권론
- III. 원효사상와 인권
- IV. 결 어

### I. 序言

법적 권리이면서 도덕적 권리인 인권은 서구 전통 사상으로부터 형성된 서구 중심적 인권, 인간은 목적이고 자연은 수단이라는 인종 중심적 인권, 경쟁 수직적 사회구조에 개인주의를 배합시킨 인권, 국가는 국민 보호를 약속하고 국민은 국가권위에 서약해야 한다는 등의 特性이 있음에 반하여, 우리는 동양적 관점에서의 인권, 인종 이기주의를 벗어난 인권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sup>1)</sup> 우리나라의 경우 80년대 민주화 과정에서 인권개념이 정치적 자유, 비인간적 노동환경 탈피를 주장하면서 등장한 바 있다.

불교는 (서구 중심적 인권과 달리) 인간뿐 아니라 온 존재의 안녕을 추구하며 상생과 共同體的 觀點에서 온 생명 배려와 온 존재의 존중적인 인권을 추구한다. 또한 불교의 生態的 세계觀이 인간중심주의의 인권을 초월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내외의 문헌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의 인권문제를 불교적 시각에서 해소하기 위해서 불교와 인권이론을 고찰한 후 인권문제의 해법으로 원효사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권을 시민적 또는 정치적 권리<sup>2)</sup>인 제1세대 인권, 경제적 또는 사회문화적 권리인 제2세대 인권, 연대권인 제3세대 인권으로 분류하는 프랑스의 바삭에 의하면,<sup>3)</sup> 제1세대 인권은 18세기 계몽주의에 기원해서 자유주의 철학에 의거 정립되고 자유를 이념으로 하는 권익침해로부터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소극적 권리라고 한다. 오늘날 인권개념의 근간을 형성하는 제1세대 인권은 자본주의와 자유주의 정치이념을 전제로 하며,<sup>4)</sup> 개인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배타적 개인주의를 그 특징으로 한다.<sup>5)</sup>

19세기 사회주의에 기원하여<sup>6)</sup> 평등을 이념으로 하는 제2세대 인권은,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1) 다만 불교가 인간의 생명을 중시한다는 것은 다르지 않으므로 불교와 인권을 연결시키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박병기, 「한국 불교에서 삶의 의미 문제와 인권」, 『윤리교육연구』, 한국윤리교육학회, 2014.4, 203면.  
 2) 구체적으로는 투표권, 인론허회의 자유권, 종교의 자유권, 평등권, 사적 생활권, 재산권, 생명권 등이 있다.  
 3) 바삭은 프랑스 혁명의 자유, 평등, 인류애에서 영감을 받아 인권을 분류했다고 한다. 박병도, 「연대의 권리, 제3세대 인권」, 『인권법』, 아카넷, 2006, 164면.  
 4) 한편 역설적이게도 자유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유권을 신성시하는 것은 비인권적 처지를 정당화하는 기능도 있다고 본다. 안옥선, 『Buddhism & Human Rights』, 불교시대사, 2008, 21면.  
 5) 따라서 국가는 무간섭으로 그런 자유를 보장해줘야 한다.  
 6) 개인주의적 자유, 배타적 재산권보호, 자유주의와 자본주의가 만든 모순 극복 차원에서 발생했다.

보호받아야 하는 제1세대 인권과 달리, 사회주의를 배경으로 하기에 실질적 평등의 실현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자 하는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적극적 권리이다. 따라서 제2세대 인권에는 취업권 및 임금권, 교육을 받을 권리, 적절한 의료를 받을 권리, 사회보장권, 여가권 등이 포함된다.<sup>7)</sup>

인류애의 이념으로부터 발전되어 지역사회와 국가 등의 연대를 중시하는 제3세대 인권에는 경제개발에 대한 권리가 있으나, 조화로운 사회에서 살 권리나 환경권<sup>8)</sup> 등이 포함되어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개발에는 반대한다.

도텔리,<sup>9)</sup> 기그 등 다수의 사람들은 인권을 법적 권리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도덕적 권리 역시 인권이라는 생각이다. 그 이유는 도덕적 권리를 떠나서는 법적 권리(보편적 권리의 특수화된 형태)를 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덕적 권리로부터 구체화된 법적 권리는 항상 온전한 것이 아니어서 도덕적 권리를 거울삼아서 자신을 교정하는 것이 필요하다.<sup>10)</sup> 법적 권리는 국부적이고 시대적으로 통용됨에 반해서 도덕적 권리(예, 자유와 평등 같은 천부인권)는 보편적이고 항상성이 있다.<sup>11)</sup> 따라서 도덕적 권리를 인권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상에서 볼 때 인권은 법적 문제이자 동시에 도덕적인 문제이고, 실정법의 문제이자 당위의 문제인 것이다. 여기에서 (아직 實定法化 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人權이 아직은 도덕과 법 사이에 존재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법은 도덕의 최소한<sup>12)</sup>이라는 말 또한 있다.

## II. 佛敎 人權論

### 1. 불교 인권개념의 특징

먼저 불교 인권개념은 (서구의 個體性을 강조하는 개인주의적 속성과 달리) 自我의 일체성에 근거한 너와 나의 인권이, 관계 속에서 함께 추구되는 상호인권을 추구하며 덕성의 배양을 강조한다. 불교의 견지에서는, 모든 것은 상호의존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으며 변하고 있으므로 관계망을 벗어난 개체는 물론 불변 고정의 실체도 부정되므로, 자아의 무변화적 실체성과 탈관계적 개체성은 허구이다. 자아는 육체를 단위로 한 고립적 개체일 수도 없고 불변의 정신을 중심으로 한 실체일 수도 없다. 자아는 상호의존적이어서 타인과 일체적 방식으로 존재하며 스스로의 속성을 가지고 존립하는 존재가 아니다. (일체적) 자아는 타인들을 내가 그들과 같은 것처럼 그들 또한 나와 같다. 즉 자신과 타인을 동일시 볼 수 있어야 한다. 일체적 자아는 자신의 삶이 타인에게 의존해 있다고 보아 타인의 인권실현이 자신의 인권실현이며 자신의 인권실

7) 짐 아이프 저, 김형식·여지영 역,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인간과 복지, 2002, 60-61면.

8) 환경권은 우리가 향유하는 권리이지만 유지를 위해서는 의무를 다해야 하는 권리이기도 하다.

9) 도덕적 의미의 right는 올바른 의미로 마땅히 해야 할 올바른 것이고, 법적 의미의 right는 권원(entitlement) 즉 특정한 힘을 갖는다는 뜻이다.

10) 또한 인권은 법 현실을 넘어 도덕적 당위를 추구하는 성향이 있다.

11) 도덕적 권리를, 도텔리는 올바르게 정의하고 기그는 정의의 보편적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다. 임흥빈, 「인권개념의 철학적 정당화와 문화다원주의」, 『철학연구』 54, 2001, 347-348면.

12) 법의 최대치가 도덕이라고도 한다.

현에는 타인의 인권실현이 수반된다는 태도이어야 한다. (자신과 타인의 권리가 상호 고려적으로 이해 추구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민감해야 하기 때문에) 인권은 절대적으로 구속되는 안 되고 법 속에 갇힌 문제일 수도 없다.<sup>13)</sup>

또한 불교 인권개념은 (소유성을 강조한 개인주의적 인권과는 달리) 도덕성과 적법성을 전제로 (신체에 대한 소유의식 및 이기적 소유를 비판하며) 무아의 자리<sup>14)</sup> 利他的<sup>15)</sup> 所有, 나눔에 의한 공유적 소유개념을 強調한다.

출가에 대해 (붓다는) 무소유를, 在家에 대해서는 공유적 소유(보시하는 축적과 소비)를 가르친다. 재가자는 정당하게 돈을 벌어서 부양하고 소비하며 저축하고 재투자해야 한다는 가르침은 (정당한 재산축적뿐 아니라) 소비도 권장한다. 부를 유용하게 쓴다는 것은 부의 소비방안으로 자리 이타적 방법에 의한 향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sup>16)</sup> 축적과 소비에서 보시의 방법을 살린다면 축적과 소비는 분명 미덕이 될 것이다.

소유의 原則으로는, 전술한 부의 자리 이타적 향유, 근면한 노동과 법에 따른 적법성이 있다. 전자는 선행이든 보시든 자신을 이롭게 하면서도 소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붓다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부를 쓰고 타인과 나누는 선행을 칭찬한다. 正命(올바른 일, 직업)과 正業(올바른 행위)을 통한 활동인 ‘법에 따른 適法性’은 계를 지킬 것을 전제한다.<sup>17)</sup> 부의 자리 이타적 향유는 정당하게 취한 부를 가지고 자신을 행복하게 함은 물론 나아가 나눔을 통해 타인을 이롭게 하되 재물 자체에 대해서는 탐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타의 관점에서 강조되는 것은 보시(탐욕의 때가 없는 마음)이다. (개인주의적 인권의 소유와 달리) 불교적 所有概念에서는, 소유를 말하지만 적법성과 도덕을 전제(한 소유)하고, 향유를 말하지만 자리 이타적 향유 (즉 공유성 함축)를 말하는 것이다.

끝으로 불교의 인권개념은 (排他性を 강조한 개인주의적 인권과는 달리) 타자는 또 다른 나이기에 타인 배려적, 욕망 절제적이다.<sup>18)</sup> 따라서 人權도 타자와 자신 양방이 평등한 관계에서 상호 배려적인 방법으로 추구되어야 하는 것이다.<sup>19)</sup> 또한 개인주의적 인권특징인 욕망의 무한성에 대해, 불교는 욕망 절제적이다. 무한 욕망은 (늘 채워지지 않는) 불만을 전제하지만, 절제 욕망은 만족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만족을 최상의 부라고도 한다.<sup>20)</sup> 절제 욕망은 (자아와 소유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탐진치<sup>21)</sup>의 소멸을 지향한다. 붓다는 부에 대한 집착을 악으로 보면서도, 한편 (사람이 빈곤하면 절도, 강도 등 범죄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빈곤도 거부

13) 법칙, 규범이 인권의 절대적인 척도일 수 없다. 규범에 근거한 인권이 실현범위에서 유한하다면 덕성을 배양한 인권은 실현범위가 무한하다.

14) 자리란 부에 의해서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15) 利他는 부를 타인에게 이롭게 쓰는 것이다.

16) 우리 불교의 소유개념과 현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소유개념이 상충할 수 있다. 자본주의적 소유가 약자를 몰락시키고 배타적 이윤을 창출 축적의 의미라면 佛敎的 所有와 배치될 것이다. 불교는 어떤 경우라도 도덕성을 결여한 소유, 축적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한 소유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붓다는 無我의 자리 利他的 所有를 이상적인 소유(이념)로 제시한다.

17) 안옥선, 전제서, 197면.

18) 욕망 절제적 인권은 (만족을 강조하고)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한다.

19) 이것을 원론적으로 표현하면 자리 이타적 자비에 근거한 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

20) 박경준, 「생산과 소비에 대한 불교의 기본입장」, 『한국불교학』, 1993, 51면.

21) 탐념 화념 어리석음은, 8정도로 해결한다.

한다.

## 2. 불교인권론의 내용

### (1) 불교 인권개념의 전제

불교인권개념을 논함에 있어 인권이 인간에 한정될 수 없고 모든 존재의 안녕까지 보장해야 함을 의미하는 不二, 타인에 대한 보살핌을 의미하는 자비, 자기보존의 보편성<sup>22)</sup> 고려되어야 한다.

### (2) 불교 인권성립의 근거 및 원칙

불교 人權成立의 근거는 (모든 인간에게 내재된 깨달음으로) 도덕성과 불성이라고 본다. (양자는 본질에서는 동일한 것으로 모든 사람은 예외없이 평등하게 출생하여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불성은 도덕적 가능성에 국한되지 않고 더 확장되어 常樂我淨<sup>23)</sup> · 자비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 불성이 人權에 대해 갖는 의미는 人間尊重이다. 불교인권 옹호의 근거는 사성제(苦集은 반인권적인 현실, 滅道는 반인권적인 현실에서 벗어나 인간존중의 행복한 현실로 실행하는 것을 의미)에서 찾을 수 있다.

불교 인권실현의 원칙에는 인권의 실현에 있어서 연기의 이치에 따르는 緣起的 原則과 비폭력, 불살생과 자비, 악에 대한 교화로 나타나는 平和的 原則이 있다. (연기적 원칙은 인간존재의 실상을 상호의존적이고 관계적으로 이해하고 상호 존중하여 자기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함께 실현하는 것이다.<sup>24)</sup>)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나 離苦得樂의 행복추구권은 어떤 이유로도 폄하될 수 없기에, 오늘날 보편적인 가치로서 인권이 갖는 의미를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샤이는 그의 저서 세계인권사상사에서, 불교 힌두교 유교 등 인류의 모든 전통에 인권사상이 있다고 밝히면서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류애를 이념으로 하는 세계인권선언이 인류문명 초기부터 존재한 윤리를 반영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샤이가 불교와 관련해서 찾아낸 인권의념은 보편적 자비심, 사성제의 고, 불교의 해탈사상, 대승불교의 대중구원, 생명과 자유권, 인신보장권을 담고 있는 계율, 경제분배의 가르침, 공유적 재산관리, 카스트제도 부정, 동성애에 대한 관용 등 불교가 인권에 대해 선진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sup>25)</sup>)

달라이 라마는 (현재 추구되는 인권은 서구적 기준에 의한 것이므로 문화적 배경이 다른 아시아 국가에 적용될 수 없음을 지적하며) 人權은 인류가 추구할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특정한 전통이 人權이라는 보편적 기준에 불합치하면 그 전통은 변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인권과 관련해서, 지구 한 쪽에서 누군가 인권을 침해당하면 모두가 대항해야 한다는 普遍責任

22) 자기보존의 개념은 그 보편성에 근거하여 모든 존재의 離苦得樂의 욕구를 인정한다. 人權은 이고득락의 추구과정인 것이다.

23) 열반의 4덕인 상락아정이란 영원 불멸의 常, 괴로움없이 평온한 樂, 대야 경지로 집착을 떠나 걸림 없는 我, 번뇌와 더러움이 없는 淨을 말한다.

24) 안옥선, 「불교생태학에서 존재평등의 근거」, 『불교학연구』, 2005, 235-236면 참조.

25) 안옥선, 전제서, 69-71면 참조.

(우리모두가 세계의 모든 동료 인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 보편책임이 인류 생존과 행복의 열쇠라고까지 한다. 보편책임의 실천으로는 자비, 협동, 보살핌 등을 든다.) 인권문제는 (독립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평등문제와 연관되어서 많은 다수의 복리(重要) 앞에서 자기 자신의 복리는 유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최초의 불교인권 연구자인 연기영 교수는, 붓다가 피지배층이 당하는 학대와 억압, 착취 등의 고통을 타파하려고 출가했다고 보아 붓다의 출가 동기를 인권의 시각에서 해석하고 인도 암베르카르주도 천민해방운동, 티베트 억압과 인권탄압 대항, 미얀마 아웅산수지의 민주주의를 위한 저항,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운동 등 아시아 각국에서 일어났던 실천불교에 주목한다.<sup>26)</sup> 연기영 교수의 불교 인권에서의 특징에는 출가동기를 인권의 시각에서 해석한 점, 아시아 각국에서 일어난 참여불교 운동을 인권운동으로 보려고 한 점, 불살생의 비폭력 평화적 운동방법으로 불교 인권운동을 확산시켜야 한다는 점 등이 있다.<sup>27)</sup>

### Ⅲ. 元曉思想과 人權

#### 1. 화쟁

서로 다른 주장의 화해, 사람들 간의 화해, 온 존재의 화해 등 이질적인 것들을 모두 조화롭게 회통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원효의 화쟁<sup>28)</sup> 사상에는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自由와 화쟁대상이 모두 일심의 존재라는 면에서 平等을 그리고 자비의 실천을 의미한다는 면에서 人類愛가 내포되어 있다.

귀족적인 불교 시대에 살았던 원효는, 승려의 특권과 기득권적인 삶을 거부하고 파계행을 선택하여 불평등의 모순을 지적하고 민중들의 편에 서서 고통을 함께 공감하는 가히 혁명적인 행위들을 보여줬다.

그의 사상은 인간과 세계의 生滅을 설명하는 원리로 一心, 이분적인 틀을 거부하고 생각이나 행위에서 자비와 자유를 나타내는 無碍, 그리고 서로 다른 이론들을 회통 조화시키고 나아가 모든 존재의 화해를 추구하는 和靜 등으로 요약정리될 수 있다. 이를 전술한 자유, 평등, 인류애라는 인권의 이념과 연관시켜보면 일심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공유된 마음의 속성이라는 면에서) 평등,<sup>29)</sup> 무애는 자유,<sup>30)</sup> (포괄적 의미를 지니는) 화쟁<sup>31)</sup>은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류애에 상응된다고 본다.

화쟁의 對象은 서로 다른 주장 철학 등이 그 대상이지만 주장의 주체인 인간도 대상이 될 수가 있으므로 모든 존재가 화쟁대상이 되는 것이다.<sup>32)</sup> /원효의 화쟁 方法은 긍정과 부정의 병

26) 생각건대, 한국 불교의 미래는 사회적 실천에 있다고 본다.

27) 연기영, 「불교전통과 인권의 문제」, 『계간사상』, 1996 겨울호, 77면 참조.

28) 和百家之異諍으로, 서로 다른 수많은 주장들을 화해시킨다는 의미이다.

29) 동체성을 지각하고 자비의 생을 지향한다는 면에서는 인류애와 자비를 나타낸다.

30) 무애행은 자유의 실천이자 인류애, 자비의 실천이다.

31) 화쟁에서 靜이란 서로 다른 주장을 의미한다.

렬법<sup>33)</sup>으로서 (일심이라는 차원에서) 화쟁 대상의 주장에 대해서 대긍정을 지향하면서도 긍정과 동시에 부정하는 것(辨證法的 特性)이다. 이를 원효는 “세우지 않는 바가 없으며 스스로 버리고 깨뜨리지 않는 바 없으며 도리어 인정한다”라고 한다.

## 2. 화쟁과 자유, 평등 그리고 인류애

화쟁이 실천하려는 자유의 이념은 집착하지 않는 마음의 자유로서 (금강경의 應無所住<sup>34)</sup>와 같은) 心無有住<sup>35)</sup>의 자유이다. 화쟁이 지향하는 심무유주의 자유에서 핵심은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화쟁에서는 언어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강조한다. 원효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달을 본 이후에는 손가락을 떠나야 하듯이, 의미를 파악한 이후에는 언어를 버려야 한다고 하여, 언어에 의존하면서도(依言) 언어에 집착하지 않는(離言)<sup>36)</sup> 언어를 버리는 것(遺言)을 전략으로 한다.<sup>37)</sup>

화쟁에 도달되는 심진여는 특정한 모양이나 특정한 관념으로서의 상에 대한 집착을 버린 경지, 경계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분별이 없는 것), 즉 어디에도 속박되지 않는 마음의 자유 상태, 심무유주의 경지<sup>38)</sup>이다. 화쟁이 내포하는 이러한 (마음의) 자유는,<sup>39)</sup> 초기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탐진치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서, 모든 자유의 근간이 되고 모든 자유의 완성이기에 중요하다. 물리적 자유, 사회적 자유, 지적인 자유를 획득했다라도 마음(정서)의 자유 없이는 온전한 自由를 획득했다고 할 수 없다.

화쟁은 그 근간이 一心이기에 긍정과 부정의 병렬논법을 구사한다. 일심은 참된 마음으로 열반을 지향하는 眞如門과 사된 마음으로 윤회에 탐닉하는 生滅門으로 구성되어 있어서,<sup>40)</sup> 우리가 참된 마음에서 벗어나 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진여문으로 인하여 참된 마음자리를 벗어나 있을 수 없다. 이 일심은 모든 인간에 구유된 것이므로 화쟁되지 못할 주장이나 사람은 없으며, 일심으로 인하여 인간은 평등하고 온 존재도 평등한 것이다.

平等을 의미하는 이 일심이 화쟁에 적용될 경우, 화쟁이 서로 다른 異見을 대상으로 할 때 그들은 평등하고 화쟁이 서른 다른 이를 대상으로 할 때 그들은 평등하며 화쟁이 온 존재를 대상으로 할 때 온 존재는 평등하다는 의미를 갖게 한다.<sup>41)</sup>

32) 개념적으로는 善惡, 染淨 등 대립적 개념, 계층적으로는 남녀,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등이 포함된다.

33) 이치상으로는 부정할 것도, 화자의 뜻을 고려해서 긍정하자는 것이다.

34) 머무르는 데를 없게 하여 그 마음이 생겨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應無所住 而生其心)는 의미이다.

35) 마음이 어디에도 머무름이 없다.

36) 의인과 이인의 전략은 언어의 도구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한계를 인정하여 절대화하지 않는 것이다.

37) 말에 의존하면서도 말에 집착하지 않고 말에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말에 의존하는 것이다.

38) 이 경지에서는 언어에 의존한 분별이 없음만이 아니라 染汚(염오) 없음, 삼계 없음까지를 의미한다.

39) 자유를 물리적 자유(의식주로부터의 자유 등), 사회적 자유(전쟁 인권침해로부터의 자유 등), 정서적 자유(번뇌 고통으로부터의 마음의 자유 등), 지적 자유(편견으로부터의 자유 등) 등 4가지로 분류해 보면, 정서(마음)의 자유에 속한다. Phra Prayudh Payutto, 『Buddhist Solutions for the Twenty-First Century』, Bangkok Thailand, Buddhadhamma Foundation, 1996, pp.29-30.

40) 원효는 일심의 二門(진여문, 생멸문)에 만 가지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은정희, 『원효 대승기신론소 별기』, 일지사, 1991, 23면.

41) 안옥선, 『평등 자유 자비의 실천으로서의 화쟁』, 『철학』, 2005, 77-78면 참조.

화쟁은 (일심에 근거한 자비행으로,<sup>42)</sup> 人類愛에 상응하는 자비의 실천을 의미하기도 한다. 모든 인간은 진여성이 있는 일심의 존재로 평등하기에 이질적인 사람들이 화쟁될 수 있는 것이고, 화쟁은 일심의 존재로서 인간에 대한 긍정·신뢰·무조건적 수용의 행위인 것이다.<sup>43)</sup>

화쟁이 자비의 실천이기에 (상대의 정서나 감정, 마음을) 무조건 긍정하라고 한다. 특히 원효는 화쟁에 있어서 瞋(이치 의미)와 情(정서 의미)을 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전술한 지와 정은, 순응하는 것으로 말하고 순응하지 않는 것으로 말하며 같지도 않게 하고 다르지도 않게 하여 서로 융하게 한다. 모든 지와 정을 이끌어 바다에 흘러가도록 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허공의 바람을 취하지 않도록 해서 일미의 신공을 바라도록 해야 한다. 그 이유는 말을 그대로 취했을 때는 부정할 수밖에 없고 뜻을 이해하면 긍정할 수밖에 없기에 지와 정을 같이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sup>44)</sup>

### 3. 화쟁과 온 존재의 조화

화쟁은 인권의 세 이념인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류애(자비)에 상응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욕망의 미화나 확대를 전제하는 서구적 인권개념과 달리) 화쟁에 내포된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류애(자비)는 인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자신의 욕망에 대한 비움, 온 존재에 대한 긍정을 前提한다.

화쟁에서의 인권은 (인간 각자가 자신의 관념을 절대화한 인권이 아니라) 서로 다른 입장(존재)들을 화해시키고자 하는 온 존재를 포섭 수용하는 인권인 것이다. 이는 인간뿐만 아니라 온 존재가 공유하는 일심으로 온 존재의 수없는 이질성과 다양성과 개별성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차이의 동거 또는 同異의 동시성).<sup>45)</sup> 따라서 화쟁은 궁극적으로 온 존재의 調和를 추구한다.

## IV. 結 語

법적 도덕적 권리인 서구 중심적 인권은 인간은 목적이고 자연은 수단이라는 인종 중심적 인권, 경쟁 수직적 사회구조에 개인주의를 배합시킨 인권, 국가가 국민 보호를 하고 국민은 국가권위에 서약해야 한다는 特性이 있다. 반면에 동양적인 인권은 인종 이기주의를 벗어난 인권을 말한다. 佛敎 역시 인간뿐만 아니라 온 존재의 안녕을 추구하며 상생과 공동체적 관점에서 온 생명에 대한 배려와 온 존재를 존중하는 인권을 추구한다.

42) 일심으로 인해서 화쟁이 가능하다.

43) 화쟁은 일차적으로 갈등의 해소를 도모하지만 이런 갈등의 해소는 자비의 발로이자 실천인 것이다. 화쟁의 핵심을 자비에서 찾기도 한다. 이효길, 『원효의 화쟁사상에 대한 재검토』, 『불교학연구』, 2002, 18면 참조.

44) 논리상으로 합당하지 않아 부정해야 하나, 화자의 의도는 진실되기에 무조건적으로 긍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원효는 (일심의 존재로서 인간의 진여성에 대한 무조건적 수용을 주장하여) 이치상으로 부정되어야 할 것도 화자의 뜻을 고려해서 인정하자는 주장이다.

45) 김형효, 『원효의 대승철학』, 소나무, 2006, 263면 및 273면 참조.

(인권을 시민적 또는 정치적 권리인 제1세대 인권, 경제적 또는 사회문화적 권리인 제2세대 인권, 연대권인 제3세대 인권으로 분류한) 바삭에 의하면, 오늘날 인권개념의 근간을 형성하는 제1세대 인권은 (제몽주의에 기원해서 자유주의 철학에 의거 정립되고 자유를 이념으로 하는) 권익침해로부터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소극적 권리이고, 사회주의에 기원하여 평등을 이념으로 하는 제2세대 인권은 실질적 평등의 실현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자 하는 적극적 권리(취업권 및 임금권, 교육을 받을 권리, 적절한 의료를 받을 권리, 사회보장권, 여가권 등 포함)라고 한다. 인류애의 이념으로부터 발전되어 지역사회와 국가 등의 연대를 중시하는 제3세대 인권에는 경제개발에 대한 권리, 조화로운 사회에서 인간답게 살 권리(나 환경권) 등이 포함된다고 한다.

(도덕리, 기그 등) 많은 사람들은 人權을 법적 권리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므로, 도덕적 권리를 떠나서는 법적 권리(보편적 권리의 특수화된 형태)를 논할 수 없다.<sup>46)</sup> 따라서 도덕적 권리 역시 인권이다. 법적 권리는 국부적이고 시대적으로 통용됨에 반해서, 도덕적 권리(예, 자유와 평등 같은 천부인권)는 보편적이고 항상성이 있다. 따라서 도덕적 권리를 인권에 포함시켜야 한다.

불교 인권개념은 自我의 일체성에 근거한 너와 나의 인권이, 관계 속에서 함께 추구되는 상호인권을 추구하며 덕성의 배양을 강조한다. 자신과 타인을 동일시 볼 수 있어야 한다. 일체적 자아는 자신의 삶이 타인에게 의존해 있다고 보아 타인의 인권실현이 자신의 인권실현이며 자신의 인권실현에는 타인의 인권실현이 수반된다고 보아야 한다. 자신과 타인의 권리가 상호 고려적으로 이해, 추구되어야 하고 인권은 법 속에 갇힌 문제일 수 없다. 또한 불교 인권개념은 도덕성과 적법성을 전제로 무아의 자리 利他的 所有, 나눔에 의한 공유적 소유개념을 강조한다. 부를 유용하게 쓴다는 것은 부의 소비방안으로 자리 이타적 방법에 의한 향유를 의미한다. 소비에서 보시의 방법을 살린다면 소비는 미덕이 될 것이다. 소유의 원칙으로는, 부의 자리 이타적 향유, 근면한 노동과 법에 따른 적법성이 있다. 부의 자리 이타적 향유는 정당하게 취한 부를 가지고 자신을 행복하게 함은 물론 나아가 나눔을 통해 타인을 이롭게 하되 재물 자체에 대해서는 탐하지 않는 것이다. 이타의 관점에서 강조되는 것은 보시(탐욕의 때가 없는 마음)이다. 불교의 인권개념은, 타자는 또 다른 나이기에 타인 배려적, 욕망 절제적이어서 人權 또한 타자와 자신 양방이 평등한 관계에서 상호 배려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 무한 욕망은 늘 채워지지 않는 불만을 전제하지만 절제 욕망은 만족을 전제로 한다. 절제 욕망은 자아와 소유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탐진치의 소멸을 지향한다.

불교 인권개념을 논함에 있어서는 인권이 인간에 한정될 수 없고 모든 존재의 안녕까지 보장해야 함을 의미하는 不二, 타인에 대한 보살핌을 의미하는 자비, 자기보존의 보편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불교 人權成立의 근거는 모든 인간에게 내재된 깨달음으로 도덕성과 불성이라고 본다. 불성이 人權에 대해 갖는 의미는 人間尊重이다. 불교인권 옹호의 근거는 사성제(苦集은 반인권적인 현실, 滅道는 반인권적인 현실에서 벗어나 인간존중의 행복한 현실로 실행하는 것을 의미)에 있다. 불교 인권실현의 원칙에는 인권의 실현에 있어서 연기의 이치에 따르는 緣起

46)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的 原則과 비폭력, 불살생과 자비, 악에 대한 교화로 나타나는 平和的 原則이 있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나 離苦得樂의 행복추구권은 어떤 이유로도 폄하될 수 없다. 따라서 오늘날 보편적인 가치로서 인권이 갖는 의미를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샤이는 그의 저서 세계인권사상사에서, 불교, 힌두교, 유교 등 인류의 모든 전통에 인권사상이 있다고 밝히면서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류애를 이념으로 하는 세계인권선언이 인류문명 초기부터 존재한 윤리를 반영했다고 하고 있다. 이샤이가 불교와 관련해서 찾아낸 인권이념은 보편적 자비심, 사성제의 고, 불교의 해탈사상, 대승불교의 대중구원, 생명과 자유권, 인신보장권을 담고 있는 계율, 경제분배의 가르침, 공유적 재산관리, 카스트제도 부정, 동성애에 대한 관용 등이다. 달라이 라마는 현재 추구되는 인권은 서구적 기준에 의한 것이므로 문화적 배경이 다른 아시아 국가에 적용될 수 없음을 지적하면서 인권은 인류가 추구할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특정한 전통이 인권이라는 보편적 기준에 불합치하면 그 전통은 변화해야 하고 인권과 관련해서 지구 한 쪽에서 누군가 인권을 침해당하면 모두가 대항해야 한다는 普遍責任(우리모두가 세계의 모든 동료 인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함)을 강조한다. 인권문제는 독립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평등문제와 연관되어서 많은 다수의 복리 앞에서 자기 자신의 복리는 유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최초로 불교인권을 연구하신 연기영 교수는, 붓다가 피지배층이 당하는 학대와 억압, 착취 등의 고통을 타파하려고 출가했다고 보아 붓다의 출가 동기를 인권의 시각에서 해석하고 인도 암베르카르 주도 천민해방운동, 티베트 억압과 인권탄압 대항, 미얀마 아웅산수지의 민주주의를 위한 저항,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운동 등 아시아 각국에서 일어났던 실천 불교에 주목한다.

서로 다른 주장의 화해, 사람들 간의 화해, 온 존재의 화해 등 이질적인 것들을 모두 조화롭게 회통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원효의 화쟁 사상에는,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自由와 화쟁대상이 모두 一心의 존재라는 면에서 평등을, 그리고 자비의 실천을 의미한다는 면에서 인류애가 내포되어 있다. 그의 사상은 인간과 세계의 生滅을 설명하는 원리로 一心, 이분적인 틀을 거부하고 생각이나 행위에서 자비와 자유를 나타내는 無碍, 그리고 서로 다른 이론들을 회통 조화시키고 나아가 모든 존재의 화해를 추구하는 和靜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를 자유, 평등, 인류애라는 人權의 이념과 연관시켜보면 일심은 평등, 무애는 자유, 화쟁은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류애에 상응된다. 화쟁의 대상은 서로 다른 주장과 철학 등이 그 대상이지만, 주장의 주체인 인간도 대상이 될 수가 있으므로, 모든 존재가 대상이다. 화쟁 方法은 긍정과 부정의 병렬법으로서 (일심이라는 차원에서) 화쟁 대상의 주장에 대해서 대긍정을 지향하면서도 긍정과 동시에 부정을 하는 것(辨證法的 特性)이다. 화쟁이 실천하려는 자유의 이념은 집착하지 않는 마음의 자유로서 금강경의 應無所住와 같은 잡착이 없는 心無有住的 자유이다. 따라서 원효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달을 본 이후에는 손가락을 떠나야 하듯이, 의미를 파악한 이후에는 언어를 버려야 한다고 하여, 언어에 의존하면서도(依言) 언어에 집착하지 않는(離言) 언어를 버리는 것(遺言)을 강조한 바 있다.

화쟁에 도달되는 심진여는 특정한 모양이나 특정한 관념으로서의 相에 대한 집착을 버린 경지, 경계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분별이 없는 것), 즉 어디에도 속박되지 않는 마음의 자유 상

태, 심무유주의 경지이자, 초기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탐진치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써, 모든 자유의 근간이 되고 모든 자유의 완성이다. 물리적 자유, 사회적 자유, 지적인 자유를 획득했다 라도 마음(정서)의 자유 없이는 온전한 自由를 획득했다고 할 수 없다. 화쟁은 그 근간이 一心이기에 긍정과 부정의 병렬논법을 구사한다. 일심은 참된 마음으로 열반을 지향하는 眞如門과 샅된 마음으로 윤회에 탐닉하는 生滅門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우리가 참된 마음에서 벗어나 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진여문으로 인하여 참된 마음자리를 벗어나 있을 수 없다. 일심으로 인하여 인간은 평등하고 온 존재도 평등한 것이다. 卍을 의미하는 이 일심이 화쟁에 적용될 경우, 화쟁이 서로 다른 異見을 대상으로 할 때 그들은 평등하고 화쟁이 서른 다른 이를 대상으로 할 때 그들은 평등하며 화쟁이 온 존재를 대상으로 할 때 온 존재는 평등하다는 의미를 갖게 한다. 화쟁은 일심에 근거한 자비행으로, 人類愛에 상응하는 자비의 실천을 의미하기도 한다. 화쟁이 자비의 실천이기에 상대의 정서나 감정, 마음을 무조건 긍정하라고 한다. 특히 원효는 화쟁에 있어서 智(이치 의미)와 情(정서 의미)을 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지와 정은, 순응하는 것으로 말하고 순응하지 않는 것으로 말하며 같지도 않게 하고 다르지도 않게 하여 서로 응하게 한다. 모든 지와 정을 이끌어 바다에 흘러가도록 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허공의 바람을 취하지 않도록 해서 일미의 신공을 바라도록 해야 한다. 그 이유는 말을 그대로 취했을 때는 부정할 수밖에 없고 뜻을 이해하면 긍정할 수밖에 없기에 지와 정을 같이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화쟁은 인권의 세 이념인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류애(자비)에 상응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화쟁에 내포된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류애(자비)는 인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 자신의 욕망에 대한 비움 · 온 존재에 대한 긍정을 전제한다. 화쟁에서 인권은 온 존재를 수용하는 인권으로 온 존재의 調和를 추구한다고 보며 이러한 화쟁의 시각에서 우리가 안고 있는 인권문제가 해소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 참고문헌 〉

- 김용해,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근거 짓는 작업에서의 문제들」, 『한국사회와 다원주의』, 이학사, 2003.
- 김은실, 『일상의 억압과 소수자의 인권』, 사람생각, 2000.
- 김형효, 『원효의 대승철학, 소나무』, 2006.
- 김형식 여지영 역(집 아이프 저),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인권과 사회복지』, 2002.
- 박구용, 『우리안의 타자 : 인권과 인정의 철학적 담론』, 철학과 현실사, 2003.
- 박경준, 「생산과 소비에 대한 불교의 기본입장」, 『한국불교학』, 1993.
- 박병기, 「한국 불교에서 삶의 의미 문제와 인권」, 『윤리교육연구』, 한국윤리교육학회, 2014.
- 성공회대 인권평화연구소, 『동아시아 인권의 새로운 탐색』, 2002.
- 안옥선, 「불교에 인권이 있는가」, 『불교평론』, 1999.
- 안옥선, 「불교의 인권」, 『용봉논총』, 2001.
- 안옥선, 「개인주의적 인권에 대한 불교적 비판」, 『철학논총』, 2002.
- 안옥선, 「원효사상에 있어서 인권의 기초개념」, 『범한철학』, 2002.
- 안옥선, 「평등 자유 자비의 실천으로서의 화쟁」, 『철학』, 2005.
- 연기영, 「불교전통과 인권의 문제」, 『계간사상(겨울호)』, 1996.
- 이효걸, 「원효의 화쟁사상에 대한 재검토」, 『불교학연구』, 2002.
- 임흥빈, 「인권개념의 철학적 정당화와 문화다원주의」, 『철학연구』, 2001.
- 은정희 역, 『원효의 대승기신론소 별기』, 일지사, 1991.
-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인권법』, 아카넷, 2006.
- 장은주, 「문화적 차이와 인권」, 『철학연구』, 2000.
- Phra Prayudh Payutto, 『Buddhist Solutions for the Twenty-First Century』, Bangkok Thailand, Buddhhadhamma Foundation, 1996.

〈 국문초록 〉

법적 도덕적 권리인 서구 중심적 人權은 인간은 목적이고 자연은 수단이라는 인종 중심적 인권관에 반하여, 동양적인 人權은 인종 이기주의를 벗어난 인권을 말한다. 불교 역시 인간뿐 아니라 온 존재의 안녕을 추구하며 상생과 공동체적 관점에서 온 생명에 대한 배려와 온 존재를 존중하는 인권을 追求한다.

불교 인권개념을 논함에 있어서는 인권이 (인간에 한정될 수 없고) 모든 존재의 안녕까지 보장해야 함을 의미하는 不二, 타인에 대한 보살핌을 의미하는 慈悲, 자기보존의 普遍性이 고려되어야 한다. 불교 人權成立의 根據는 모든 인간에게 내재된 깨달음으로 도덕성과 불성(인간존중)이라고 본다. 불교인권 옹호의 근거는 사성제(苦集은 반인권적인 현실, 滅道는 반인권적인 현실에서 벗어나 인간존중의 행복한 현실로 실행하는 것을 의미)에 있다. 불교 인권실현의 原則에 는 인권의 실현에 있어서 연기의 이치에 따르는 緣起的 原則과 비폭력, 불살생과 자비, 악에 대한 교화로 나타나는 平和的 原則이 있다.

서로 다른 주장의 화해, 사람들 간의 화해, 온 존재의 화해 등 이질적인 것들을 모두 조화롭게 회통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원효의 화쟁 사상에는,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自由와 화쟁대상이 모두 一心의 존재라는 면에서 平等을, 그리고 자비의 실천을 의미한다는 면에서 人類愛가 내포되어 있다. 이 화쟁은 인권의 세 이념인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류애(자비)에 상응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욕망의 미화나 확대를 전제하는 서구적 인권개념과 달리) 화쟁에 내포된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류애(자비)는 인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 자신의 욕망에 대한 비움 · 온 존재에 대한 긍정을 전제하며, 화쟁에서 인권은 서로 다른 입장(존재)들을 화해시키고자 하는 온 존재를 수용하는 인권으로 온 存在의 調和를 추구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내외의 문헌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의 인권문제를 불교적 시각에서 해소하기 위해서 불교와 인권이론을 고찰한 후 인권문제의 해법으로 원효사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 불교와 인권, 원효와 인권, 원효사상과 인권, 화쟁과 인권, 일심사상과 인권

■ 논문투고일자: 2020.11.21.

■ 논문심사일자: 2020.12.04.

■ 논문재심일자: 2020.12.14.

■ 게재확정일자: 2020.12.21.

